

죄의 세력적 이해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

박장훈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I. 서론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론, 교회론, 선교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 세 범주가 모두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악으로부터 구원받아 교회를 형성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악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록 이에 대해 제시된 해결책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다.

신약 저자들에게 있어서 악의 문제의 핵심은 죄,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이다.¹⁾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조세상도 하나님의 저주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신약저자들에게 구원은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교회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 화해된 백성들의 모임이며, 선교는 죄 사함과 화해의 소식을 전하여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바울의 죄론은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에 역동성을 더해준다. 바울에게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위가 아니다. 특히 로마서 5-8장에서 그는 단수 명사 “죄”(ἁμαρτία)를 주어로 사용하여 다양한 행위의 주체로 묘사한다. 죄는 ‘세상에 들어오기’(τὸν κόσμον εἰσέρχων, 5:12), ‘다스리고’(βασιλεύειν, 5:21; 6:12), ‘지배하고’(κυριεύειν, 6:14), ‘노예로 만들고’(δοῦλος τῆς ἁμαρτίας, 6:17, 20), ‘속이고’(ἐξαπατάειν, 7:11), ‘죽이고’(ἀποκτείνειν, 7:11), 또한 ‘사람 안에 거한다’(οἰκεῖν ἐν ἐμοί, 7:17, 18, 20).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의인화인가? 죄는 그저 불순종의 행위일 뿐인데 죄의 행위가 죄인에게 끼치는 강력한 영향을 강조하고자 “죄”를 마치 인격적 존재가 각종 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인가?²⁾ 이런 해석은 즉각적으로 로마서 7:17-25과 충돌한다. 여기서 바울은 죄를 단지 악한 행위가 아닌 인간 안에 내주하며 악행을 유발시키는 선행적 힘으로 분명히 묘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이 롬 5-8장에서 “죄”를 행위의 주체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 의인화가 아니라 죄를 악한 행동이 아닌, 악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적인 세력으로 나타내려는 것이다.

바울이 죄를 세력으로 표현하는 것은 악의 문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며 구원론, 교회론, 선교론에 더욱 입체감을 준다. 이 소논문의 목적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죄를 어떤 세력으로 표현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죄 이해가 어떤 구원론적, 교회론적, 선교론적 함의를 가지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II. 바울의 묘사하는 세력적인 죄의 특징

바울이 롬 5-8장에서 묘사하는 세력적인 죄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죄는 사탄과는 구분되는 존재이며, 둘째, 죄는 인간 내에서 작용하는 세력이며, 셋째, 죄는 우주적

1) 요일 3:4; 롬 3:23;

2) 예를 들어 Bruce Norman Kaye, *The Thought Structure of Romans: With Special Reference to Chapter 6* (Austin, Tex: Schola Press, 1979), 34-38.

인 대적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차례대로 다루고자 한다.

1. 죄는 사탄과 구분되는 존재이다.

현대 바울 해석자들 중 소위 “묵시적”(apocalyptic)으로 바울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죄를 사탄과 비슷한 악마적 세력으로 이해한다.³⁾ 이 들 중 Martinus de Boer는 포괄적인 제2성전 유대문헌 연구로 묵시적 해석을 뒷받침 한 대표적 학자인데, 그의 핵심 주장중 하나는 그가 제2성전 유대교 문헌들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것과, 바울이 그 두 패턴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다.⁴⁾ de Boer는 폭넓은 범위의 제2성전 유대문헌을 살펴본 뒤 이들을 “우주론적 유대 묵시 종말론”(CJAE)과 “법정적 유대 묵시 종말론”(FJAE)으로 분류한다.⁵⁾ CJAE 패턴은 악한 악마적 존재들을 세상에서 악의 주된 근원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우상숭배로 미혹하며 그리하여 “인간의 죄 됨과 그 결과인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세계관을 나타낸다.⁶⁾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돌발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천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로운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다.⁷⁾ 이와 대조적으로, FJAE 패턴은 “인간 자신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이고, 그 끔찍한 결과로 죽음이 온다”는 세계관을 나타낸다.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한 치료책으로서 율법”을 제공해주시는 것이며, “율법에 대한 개인의 자세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할 지 여부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⁹⁾

이 두 패턴 중에서, de Boer는 바울의 사상을 CJAE로 분류한다.¹⁰⁾ 그 증거는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사탄”과 “벨리알”과 같은 악마적 존재들을 언급하고, 또한 죄와 죽음을 마치 사탄과 벨리알과 같은 실체인 것처럼 인류를 지배하는 주체로 묘사한다는 것이다.¹¹⁾ de Boer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울이 CJAE 패턴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바울은 세상의 주요 문

3) 이른바 '묵시문학적' 해석은 흔히 Ernest Käsemann으로 거슬러 올라가며(때로는 Albert Schweitzer, Wilhelm Bousset, and William Wrede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현대의 지지자들로는 일반적으로 J. Louis Martyn, Martinus de Boer, Beverly Roberts Gaventa, 그리고 Douglas A. Campbell 등이 있다. 이들의 해석에 대한 최근 비판으로는 J. P. Davies, *Paul Among the Apocalypses?: An Evaluation of the Apocalyptic Paul in the Context of Jewish and Christian Apocalyptic Literature* (Bloomsbury Publishing, 2016), 와 D. A. B. Shaw, 'The Apocalyptic Paul: An Analysis and Critique with Reference to Romans 5-8' (PhD diss., University of Cambridge, 2019)을 참조하라.

4) Martinus C. de Boer, *The Defeat of Death: Apocalyptic Eschatology in 1 Corinthians 15 and Romans 5*, JSNTsup 22 (Sheffield: JSOT Press, 1988). 이 책의 초점은 사망이긴 하지만 사망과 죄를 비슷한 종류의 존재들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책의 기본 논증은 그의 죄 이해에도 유효하다.

5) Ibid., 85.

6) Ibid.

7) Ibid.

8) Ibid., 86.

9) Ibid.

10) Ibid., 35, 183-84. 그는 바울에게도 FJAE의 몇몇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이 바울이 교정하려고 하는 바울의 “대화 상대자들”(ibid., 153)의 생각에 해당되는 것이거나 바울이 알고 있지만 그의 논증에서 “명백한 역할”을 하지 않는 전통(예: ibid., 227, n.131)에 속한 것으로 말한다.

11) de Boer 2013, 13.

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악마적 존재들의 제약 없는 활동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죄와 죽음까지도 그러한 주권적 악마적 권세들의 범주 안에 포함한다. de Boer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죄와 죽음의 개념을 의인화하고 그에 따라 '신화화'한다. 다시 말해, 그는 다른 곳에서 사탄(롬 16:20; 고전 5:5; 7:5; 고후 2:11; 11:14; 12:7; 살전 2:18 참조; 고후 4:4; 6:14; 살전 3:5 참조), 악한 천사들(롬 8:38; 고전 4:9; 6:3; 고후 11:14; 12:7 참조) 또는 귀신들(고전 10:20-21 참조)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죄와 죽음에 대해 말한다. 즉, 인간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노예로 삼는 적대적 권세들 또는 존재들로서 말하며, 이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그렇게 행한다.”¹²⁾

이런 악마 중심적 관점은 신학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de Boer와 비슷한 입장을 펼치는 Douglas Campbell은 롬 5-8장에서 바울이 죄를 악마적 외부 세력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조이지 죄 용서와 칭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¹³⁾ 이 주장에 내포된 전제는 죄가 악마적 세력이라면 죄인은 피해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를 통한 죄책 해결보다 죄로부터의 구조와 해방이라는 논리이다.¹⁴⁾ 이런 관점의 또 다른 부작용은 귀신론의 극단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비 성격적인 구원론과 귀신론을 특징으로 하는 “베뢰아 사상”의 창시자 김기동 목사는 “죄는 사단의 체현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다. 이 두 체현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있고, 사단의 체현인 죄는 우리 육신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¹⁵⁾ 물론 김기동은 de Boer의 주장을 접한 적이 없지만, 만약 알았다면 자신의 신학적 근거 중 하나로 차용했을 법하다.

하지만 신학적 부작용을 떠나 이 견해가 주해적으로 정밀한가? 바울이 정말 “죄”를 사탄과 같은 악마적인 외부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사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점이다. 바울은 주로 “사탄”(Σατανᾶς)이라는 직접적인 명칭을 사용한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세 곳에 등장하는데, 5:5에서 음행자를 “육체의 멸망을 위하여 사탄에게 내주라”고 하고, 7:5에서 부부가 합방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탄이 너희의 절제 못함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며, 10:20-21에서는 직접 사탄을 언급

12) Ibid. de Boer는 최근에도 이 책의 기본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Sin and Soteriology in Romans,’ in *Sin and Its Remedy in Paul*, ed. Nijay K Gupta and John K Goodrich (Wipf & Stock, 2020), 14-32; ‘Apocalyptic as God’s Eschatological Activity in Paul’s Theology,’ in *Paul and the Apocalyptic Imagination*, ed. Ben C. Blackwell, John Goodrich, and Jason Mast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6), 45-63; ‘Paul’s Mythologizing Program in Romans 5-8,’ in *Apocalyptic Paul: Cosmos and Anthropos in Romans 5-8*, ed. B. Roberts Gaventa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13) Douglas A. Campbell, *The Deliverance of God: An Apocalyptic Rereading of Justification in Paul* (W.B. Eerdmans Pub. Co, 2009). 물론 Campbell 의 주장은 더 복잡하다. 그리고 Beverly Gaventa 같은 경우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Beverly R. Gaventa, Review of “The Deliverance of God: An Apocalyptic Rereading of Justification in Paul,” *Christian Century* 127, no. 10 (2010): 36-37.

14) J. Louis Martyn, “Afterword: The Human Moral Drama,” in *Apocalyptic Paul : Cosmos and Anthropos in Romans 5-8*, ed. Beverly Roberts Gaventa (Baylor University Press, 2013), 160, 에 의하면 죄인은 죄를 저지르는 주범이 아니지만 공범으로 죄책은 지닌다.

15) <https://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85> 김기동의 생각을 이단적으로 만드는 더 극단적 요소는 “마귀”와 “귀신”을 구분하여, 전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을 지칭하는 반면 후자는 제 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 영혼을 가리키며, 후자가 모든 불행과 질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는 않지만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는 대상을 “귀신들”(δαίμονιους)이라고 부른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더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2:11에서 “사탄의 꾀계”(τὰ νοήματα αὐτοῦ)를 언급하고, 4:4에서는 “이 세상의 신”(ὁ θεὸς τοῦ αἰῶνος τούτου)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사탄을 가리키며, 6:14-15에서는 “벨리알”(Βελιάρ)이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11:14에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하여 사탄의 변장 능력을 언급하며, 12:7에서는 “사탄의 사자”(ἄγγελος Σατανᾶ)라는 표현을 쓴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2:18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하여 사탄을 선교 방해자로 묘사하고, 3:5에서는 “시험하는 자”(ὁ πειράζων)라는 칭호로 사탄을 가리킨다.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과 표현들은 바울이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탄을 언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탄을 지칭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사탄과 비슷한 외적인 악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석하기 힘든 이유를 바울이 특히 죄의 기원을 묘사하는 로마서 5:12a에서 찾을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5:12a절에서 다음과 같이 죄의 기원을 설명한다.

δι'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ἡ ἁμαρτία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εἰσῆλθεν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바울이 롬 5:12a에서 죄를 악마적 세력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으려면, 롬 5:12a의 아이디어들과 표현들이 바울 시대의 지적 세계에서 발견되는 악마적 세력의 개념을 가리키거나 암시하거나, 또는 적어도 당시에 이용 가능했던 악마적 존재들의 기원 이야기를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구절이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두 가지 이유다.

첫째, 제2성전 유대문헌들 중 어떤 것도 악마적 영향력이 아담을 통해(δι'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시작되었다고 묘사하지 않는다. De Boer가 바울의 세계관 이해에 중요하다고 말하는 파수꾼 전통에서는 악한 천사들이 인류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을 창 6장의 노아 시대라고 말하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¹⁶⁾ 마찬가지로, 파수꾼 전통을 철저히 차용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담 때부터 재 서술한 희년서도 악마적 활동의 시작을 노아 시대로 위치시키며, 노아 시대 이전 아담과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들을 묘사할 때는 어떤 악마적 간섭도 언급하지 않는다.¹⁷⁾ 파수꾼 전통을 채택한 텍스트들과 달리, 아담과 하와의 생애는 아담 시대에 사탄의 존재와 그의 악한 영향을 이야기한다.¹⁸⁾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도 사탄이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묘사되지는 않는다. 대신, 사탄은 아담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던져진다.”¹⁹⁾ 즉, 사탄은 아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 ‘세상에 온’ 것이다. 아담은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활동을 시작하

16) 1 En 6-10.

17) Jub 1-7.

18) 이 텍스트는 여러 언어(그리스어,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조지아어, 슬라브어)로 다양한 제목들 하에 현존한다.

19) 라틴어 버전 아담과 이브의 생애(Vita) 12-16.

는데 어떤 도구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사해사본에도 “벨리알,”²⁰⁾ “흑암의 천사”²¹⁾등의 이름으로 악마적 존재를 묘사된다. 하지만 이들의 기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들이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와 활동을 시작했다고 여길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관련 유대 문헌들 어느 곳에도 악마적 존재의 세상 침투와 장악이 아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언급이나 암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유대 저자들에게 악마적 세력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따라서 바울이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할 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이 “죄”가 악마적 존재를 연상시킨다고 볼 가능성은 낮다.

비록 유대문헌에 아담을 통한 악마적 존재의 침투를 이야기하는 문헌이 없다 해도 바울이 독창적으로 이 관점을 표현했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랬다면 바울이 죄의 기원을 표현하는 언어자체에 죄가 악마적 존재라는 암시를 담았을 것이다. 그래서 de Boer는 아담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할 때 사용하는 “세상에 들어오다”(εἰσερχεῖ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라는 표현이 죄와 죽음을 인간 세상에 침입한 자들로 나타내려는 바울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²²⁾ 하지만 이것은 지지하기 힘들다. 다양한 제 2성전 문헌들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는 방식들을 보면 “세상에 들어오는” 존재가 악마적 존재라는 암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εἰσερχεῖ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이라는 구절은 주로 세상에서 인간들의 출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²³⁾ 인간이 출생하여 세상 안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일 뿐,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침투한다는 뉘앙스는 없다. 히브리서 10장5절에서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를 주어로 사용되는데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εἰσερχόμενο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λέγει) 이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킬 뿐 그리스도가 마치 사탄과 같이 세상에 침투하셨다는 암시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구절이 비인간적 존재들의 기원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존재들은 분명히 사탄이나 악마적 세력이 아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지혜서 2:24로서 여기에 “악마의 시기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φθόνῳ δὲ διαβόλου θάνατος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는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에서 “세상에 들어온” 것은 죽음이지, 분명히 악마가 아니다. 악마는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데에 원인 역할을 한 것뿐이며 이미 그 전부터 세상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세상에 들어온다”는 표현은 죽음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악마의 특성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 결론에 대한 추가 지지는 지혜서 14:14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지혜서의 저자는 인간이 만든 우상들에 동일한 표현을 적용하여 이들이 “인간의 허영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κενοδοξία γὰρ ἀνθρώπων εἰσῆλθε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고 말한다. 이 표현의 요점은 우상들이 인간의 허영 때문에 세상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며, 우상들이 인간의 허영을 통해 악한 반역적 존재들처럼 세상에 침입했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 들어오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이 모든 예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달하는 결론은, 이 표현은 어떤 유형의 존재든 상관없이(즉, 인간이든 비인간적 존재든) 그것의 세상에서의 기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일반적 표현이라는 것이다.²⁴⁾ 기원을 설명하는 이 존재가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 이 존재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존재했는지 아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20) 예를 들어, 1QM 1:1-2; 1QS 1:9-11; 1QS 2:16; 1QS 3:20-21.

21) 1QS 3:20-21, 24.

22) de Boer, *Defeat of Death*, 161

23) 2 Bar 3:1; 48:15; 4 Ezra 7:132; 8:5; 3 En 4:3; cf. T. Adam 3:1.

24) Robert Jewett, *Romans: A Commentary*, Hermeneia, 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374도 이 점을 지적한다.

세상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즉 "세상에 들어오다"(εἰσερχεῖν εἰς τὸν κόσμον)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엇인가가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 이 표현이 그 자체로 특별히 어떤 악마적 성질을 전달한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2. 죄는 인간 내에서 역사하는 힘이다.

위에서 결론지었듯이, 롬 5:12a가 묘사하는 죄의 기원과 롬 7:11이 묘사하는 죄의 특징은 특히 제 2성전 텍스트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를 악마적인 외부 존재로 여기기 어렵게 만든다. 오히려 악한 내적인 힘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낫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롬 5:12a에서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방식은 에스라 4서에서 “악한 마음”이 아담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게 된 방식과 비슷하다. 많은 해석자들이 동의하듯이, 롬 5:12 전체는 죄가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ἐφ’ ᾧ πάντες ἥμαρτον) 그림을 만들어낸다.²⁵⁾ 여기서 아담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해가 갈린다. Ernst Käsemann과 De Boer와 같이 죄를 악마적 세력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아담을 악마적 세력인 죄에게 정복당한 첫 번째 희생자로 보며 죄가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는 진입점을 제공해준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²⁶⁾ 즉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인류를 정복하는 것은 죄 자신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담의 역할은 단순히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다. Douglas Moo와 Thomas Schreiner가 옳게 강조하듯 롬 5:15-19에서 바울은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건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²⁷⁾

τῷ τοῦ ἐνὸς παραπτώματι οἱ πολλοὶ ἀπέθανον (15b절)

κρίμα ἐξ ἐνὸς εἰς κατάκριμα (16a절)

τῷ τοῦ ἐνὸς παραπτώματι ὁ θάνατος ἐβασίλευσεν διὰ τοῦ ἐνός (17b절)

25) 이 점은 많은 학자들이 대체로 동의하지만, 5:12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ἐφ’ ᾧ πάντες ἥμαρτον에서 ἐφ’ ᾧ의 의미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적어도 네 가지 주요 해석 선택지가 있다 (1) “그 안에서”(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2) “~에 근거하여”/“~한 상황 하에서”(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이 보편적으로 통치하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다), (3) “왜냐하면”(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 그리고 (4) “그 결과로”(죽음이 모든 이들에게 퍼진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세 번째 선택지인 “왜냐하면”을 지지하는 자들 내의 특정 하위 그룹들(예: 죄가 세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주석가들은 πάντες ἥμαρτον(5:12d)을 세상에서 죄가 보편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한다.

26) Ernst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2nd impression (London: SCM Press, 1980), 147, 150; de Boer, *Defeat of Death*, 1988, 161. 또한 Ulrich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Teilband 1, Röm. 1-5*,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Bd. 6.1. (Zürich: Benziger Neukirchen-Vluyn : Neukirchener Verlag, 1978), 315; Michel, Otto, *Der Brief an die Römer*, 14. Auflag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Verlag, 1978), 186.

27) Douglas Moo, “Sin in Paul,” pages 107-30 in *Fallen: A Theology of Sin*, ed., Christopher W. Morgan and Robert A. Peterson (Crossway, 2013), 122-23; Thomas R Schreiner, *Romans*, BECNT 6 (Baker Book House, 1998). 275.

δι' ἑνὸς παραπτώματος εἰς πάντας ἀνθρώπους εἰς κατάκριμα (18a절)

διὰ τῆς παρακοῆς τοῦ ἑνὸς ἀνθρώπου ἁμαρτωλοὶ κατεστάθησαν οἱ πολλοί 19a절)

인류가 죄를 지어 죽음과 심판아래에 놓인 원인으로 아담의 범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은 아담이 단지 죄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님을 암시한다. 오히려 아담의 범죄 자체가 죄에게 힘을 실어주어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 것으로 보인다.²⁸⁾ 이렇게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죄가 확장하고 보편화 된다는 생각은 에스라 4서에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 “악한 마음”이 보편화 되었다는 설명과 유사하다. 물론 에스라 4서와 바울을 비교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에스라 4서에서는 “악한 마음”의 세상 진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두 사건이 있다. 아담의 범죄 이전에 “악한 씨”가 “아담의 마음에 심어”져서 그로 하여금 그 영향으로 범죄하게 한 사건²⁹⁾과, 아담의 범죄를 통해 “악한 마음”이 인류로 보편화되어 인류에게 “영구적인 질병”으로 작용한 사건이다.³⁰⁾ 이 두 사건 중에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 죄가 보편화 되었다는 바울의 묘사와 공명하는 것은 후자이다. “악한 마음”이 아담의 범죄를 보편적 “질병”이 되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한 것처럼” 범죄 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³¹⁾, 바울이 묘사하는 “죄”도 아담의 범죄를 통해 모든 사람을 범죄 하게 한(롬 5:12d의 πάντες ἥμαρτον) 보편적 힘이 되었다. 이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그리스어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모든 죄가 나를 통해 창조 세계에서 생겨났다”(πᾶσα ἁμαρτία δι' ἐμοῦ γέγονεν ἐν τῇ κτίσει)라는 하와의 고백³²⁾과 “악한 마음”(ἡ καρδιά ἡ πονηρά)³³⁾과 “욕심”(ἐπιθυμία)³⁴⁾ 모두 πᾶσα ἁμαρτία의 근원이라는 암시가 나온다. 즉, 이 말은 “모든 죄”(πᾶσα ἁμαρτία)가 하와를 통해 세상에서 생겨난 것인데(γέγονεν ἐν τῇ κτίσει) 그 이유가 바로 “악한 마음”/“욕심”이 먼저 하와를 통해 생겨나 모든 이들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모든 죄가 생겨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어 아담과 이브와 에스라 4서 모두 아담의 범죄로 생겨나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악한 내적인 힘의 개념을 말하고 있으며, 죄의 기원에 대한 바울의 묘사도 이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³⁵⁾

하지만 에스라 4서와 아담과 하와의 생애는 아담의 타락 전 상황을 묘사하는 반면 바울은 아담의 타락 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지 않는가? 이 차이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에스라 4서에서는 아담에게 “악한 씨”가 뿌려졌다는 짧은 언급이 나오고, 아담과 이브

28) Eckhard J. Schnabel, *Der Brief des Paulus an die Römer, Kapitel 1-5* (Witten: Giessen: SCM R.Brockhaus, 2018), 553 과 Heinrich Schlier, *Herders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Der Römerbrief*, 3rd ed. (Wien: Verlag Herder, 1977), 160도 비슷한 이해를 보인다.

29) 4 Ezra 3:21; 4:30a

30) 4 Ezra 3:21.

31) 4 Ezra 3:25.

32) GLAE 32:2.

33) GLAE 13:5.

34) GLAE 19:3.

35) 차이점 중 하나는 바울이 묘사하는 “죄”의 힘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 없이는 어느 인간도 율법의 도움만으로 극복 할 수 없지만 에스라 4서의 “악한 마음”은 율법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들이 존재한다. 아담과 이브의 생애에서도 비슷한 암시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관찰을 Schnabel, *Römer 1-5*, 549, 과 Monika Elisabeth Götte, *Von den Wächtern zu Adam: Frühjüdische Mythen über die Ursprünge des Bösen und ihre frühchristliche Rezeption* (Tübingen: Mohr Siebeck, 2016), 280도 제시한다.

의 생애에서는 더 긴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접근하여 속임수를 부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한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 사탄이 자신의 "악한 독"(τὸν ἰὸν τῆς κακίας αὐτοῦ)을 선악과 열매에 뿌리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ἐπιθυμία)이다. 이 말은 하와를 통해 "욕심"이 보편화 되어 "모든 죄"가 생겨난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며 사탄이 선악과에 뿌려놓았던 "욕심"을 함께 먹었기 때문인 것이다.³⁶⁾ 바울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에스라 4서나 아담과 이브의 생애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대해 알 길이 없다.

이 죄를 지은 원인에 대해서 아담의 범죄 이전에 죄가 "악한 마음"처럼 어떻게든 아담 안으로 들어갔거나, ἐπιθυμία처럼 금지된 나무의 열매에 담겨 있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 아담 자신 내부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였듯이, 바울의 "세상에 들어오다"는 표현은 죄가 어떻게 활동을 시작했는지 만 전달하고,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³⁷⁾ 바울이 범죄 이전 아담의 상태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저지른 원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든, 롬 5:12-21에 나타나는 바울의 주된 강조는 아담의 범죄 사실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스라 4서와 아담과 하와의 생애와는 다르게 아담의 타락 전 상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가? 아마도 바울이 자신의 초점을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로 제한하는 이유는, 아담을 자신의 아담-그리스도 비교 안에 배치했기 때문인 것 같다. 즉 아담을 세상에 곤경을 가져다주는 자로,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를 그 곤경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논리로 서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책의 틀에 충실하게 위해 바울은 아담을 문제의 기원으로 제시하여 아담이 어떻게 세상에서 곤경을 일으켰는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바울은 아담이 한 일(그의 범죄)과 세상에서 그것의 결과(죄의 보편화)에 자신의 관심을 국한시키고, 그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리를 포함한 타락 전 아담의 삶에 대한 다른 어떤 측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아담의 범죄 이전 삶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관심 부족을 제외하면, 아담을 통한 죄의 기원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아담/하와를 통해 악한 내적 힘이 세상에 들어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묘사하는 에스라 4서와 아담과 하와의 생애와 잘 공명한다.

바울이 묘사하는 "죄"를 악한 내적 세력으로 본다면, 20절에서 죄가 "통치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외적인 존재가 아닌 내적인 힘이 "통치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악한 내적 세력에 대한 제2성전 유대교 표현들을 관찰해보면 악한 내적인 힘의 강력함을 표현하기 위해 의인화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해사본 중 구원 간청(The Plea for Deliverance, 11Q5 XIX)³⁸⁾과 레위의 기도(Prayer of Levi, ALD)³⁹⁾에서 묘사되는 "악한 성향"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실체로 표현된다.⁴⁰⁾

36) GLAE 19:3.

37) Jewett, *Romans*, 345은 바울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묘사하는 것은 죄가 "아담의 행위 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함의한다"고 주장하지만 바울이 아담의 타락 전 상태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신 하기는 어렵다.

38) 11Q5 XIX. 15-16. 비슷하게 4Q436 1 i 10.

39) ALD 3:5.

40) Eibert J. C. Tigchelaar, "The Evil Inclination in the Dead Sea Scrolls, with a Re-Edition of 4Q468i (4QSectorian Text?)," *Empsychoi Logoi: Religious Innovations in Antiquity*:

마지막으로, 죄를 악한 내적 힘으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의 앞 장들에서 악한 내적 세력에 대한 바울의 빈번한 언급들과 일치한다. Robert Jewett과 다른 학자들이 올바르게 주장하듯이, 롬 5:12-21에서 죄를 통치 하는 세력으로 나타내는 바울의 묘사는 바울이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고발한다”(προητιασάμεθα γὰρ Ἰουδαίους τε καὶ Ἑλλήνας πάντας ὑφ’ ἁμαρτίαν εἶναι) 롬 3:9에서 예고되었다.⁴¹⁾ 여기서 바울은 롬 1:18-2:29에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죄들과 죄 성에 대해 열거하고 설명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혐의들이 바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죄 아래”(ὑφ’ ἁμαρτίαν) 있다는 “고발”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⁴²⁾ 바울은 롬 1-2에서 자신이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바울은 일관되게 마음의 부패를 인류와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요 문제로 강조한다. 롬 1:21-32에서 바울은 창조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간이 억누르는 방식을 묘사하면서 먼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음을 묘사하고⁴³⁾ 그 다음 다양한 행동들과 태도들이 그런 마음의 부패로부터 비롯된다는 식으로 묘사한다.⁴⁴⁾ 그렇게 저지른 죄스러운 행위와 태도들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이 부패한 상태 가운데 “인간들을 내어주게”(παρέδωκεν αὐτοὺς ὁ θεός) 한다.⁴⁵⁾ 마음의 부패가 죄의 행위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패한 마음 상태 가운데 “내어주는” 이러한 패턴이 1:21-32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악의 주요 근거지가 인간의 마음과 정신임을 시사한다.

바울이 롬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로 관심을 좁힌 후에도,⁴⁶⁾ 바울은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동일한 진단적 초점을 계속 유지한다. 2:1-4에서 유대교의 위선을 비난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τὴν σκληρότητά σου καὶ ἀμετανόητον καρδίαν) 때문에

Studies in Honour of Pieter Willem van Der Horst, eds. Alberdina Houtman, Albert de Jong, Magdalena Wilhelmina Misset-Van de Weg, and Willem van der Horst (Leiden: Brill, 2008), 352는 “악한 성향”의 의인화를 “덕목들과 악덕들을 의인화하는 더 널리 입증된 경향의 일부분”으로 이해한다. 더 통찰력 있는 것은 Rozen-Zvi (*Demonic Desires: “Yetzer Hara” and the Problem of Evil in Late Antiqu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1], 52-53)의 관찰인데, “악한 성향”에 주체성과 악마적 역할을 부여하는 이 전통이 랍비 세계관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발전에서 “악한 성향”은 인간의 죄를 야기하는 역할을 완전히 떠맡게 되고, 악마적 존재들은 다른 역할들을 담당하게 된다.

41) Jewett, *Romans*, 258-59, 그리고 또한 James Edwards, *Romans*, New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6 (Grand Rapids: Baker Books, 2011), 90; Grant R. Osborne, *Romans* (Downers Grove, IL: IVP, 2004), 86; N. T. Wright, “The Letter to the Romans: Introduction, Commentary, and Reflections,” pages 395-770,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X (Nashville, Tenn: Abingdon Press, 2002), 457.

42) Richard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16), 354; Jewett, *Romans*, 258.

43) Rom 1:21b

44) Rom 1:22-23.

45) Beverly R. Gaventa, *Our Mother Saint Paul*, 1st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7), 119는 “넘겨주다”(παράδωμι)가 군사적 이미지라고 말하며 바울이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요지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를 악마적 존재인 죄와 죽음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παράδωμι의 대상이 반드시 외적인 존재일 필요는 없다. 이 동사는 비인격적 존재나 심지어 추상적 실체와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표현이다. 실제로, 롬 1장에서 바울의 παράδωμι 사용과 더 가까운 평행은 엡 4:19에서 발견 된다. “그들이 감각을 잃고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주었다”(ἐαυτοὺς παρέδωκαν τῇ ἀσελγείᾳ). 에스라4서 15:26에서는 “죽음과 학살”에 넘겨준다는 표현이 나온다.

46) Longenecker, *Romans*, 240와 Jewett, *Romans*, 2007, 297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롬 2장에서 유대인들로 초점을 옮긴다는 데 동의한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진노를 쌓고” 있다고 진단한다(2:5). 그는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한 율법 위반의 구체적 사례들(즉, 2:21-24에서 도둑질, 간음, 성전 강도질)을 묘사하지만, 이러한 묘사들의 요점도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육체적 할례의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마음의” 내적 할례로 정의되는 참 유대인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2:29). 롬 1-2에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부패에 대한 이러한 일관된 강조는 5:12에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 지상 통치가 시작된 “죄 아래”(3:9) 있는 실재를 묘사하는 바울의 방식이다. 죄를 악한 내적 세력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로마서의 앞 장들에서 관찰되는 인류(“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내적 부패에 대한 바울의 지속적 초점을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죄를 악한 내적인 힘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로마서 7:11도 설명할 수 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ἡ γὰρ ἀμαρτία ἀφορμὴν λαβοῦσα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ἐξηπάτησέν με καὶ δι' αὐτῆς ἀπέκτεινεν

여기서 죄를 묘사하는 방식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인 논리는 이렇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속이고” “죽인” 자가 실질적으로 사탄인 뱀이므로,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죽이는” 동일한 임무의 수행자, 즉 죄가 사탄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더 간결하게 말하면, 사탄은 아담과 이스라엘 모두를 속이고 죽이는 자로서, 아담의 경우에는 뱀의 형태를 취하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죄로 기능한다는 것이다.⁴⁷⁾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이 해석을 지지하기는 어렵다.

첫째, 바울이 여기서 “뱀”이나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약 바울이 7:11에서 사탄을 이스라엘의 속이는 자이자 죽이는 자로 제시하고 싶었다면, 바울은 단순히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앞 서 잠깐 살펴보았듯, 바울은 악마적 존재를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탄”이라는 용어나 다른 명칭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사실 로마서 내에서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롬 16:20)는 선포에서 사탄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더 나아가, 주요 바울 서신들에서 바울이 창 3장을 암시하는 유일한 다른 곳은 고후 11:3인데, 여기서 바울은 “뱀”을 하와를 “속인” 자로 명확히 지정하면서, 뱀의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정확히 동일한 그리스어 동사(ἐξαπατάω)를 사용한다. 바울이 사탄이나 뱀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이러한 일관된 패턴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바울이 7:11에서 사탄이나 뱀을 염두에 두었다면, “뱀이(또는 사탄이) 나를 속이고 죽였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울이 “뱀”이나 “사탄”보다는 “죄”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뱀이나 사탄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묘사하려고 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다른 무엇인가”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위해, 우리는 죄의 기원이 묘사되어 있는 롬 5:12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앞선 로마서 5:12a에 대한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죄를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는 존재로 표현한 바울의 묘사는 사탄, 뱀, 또는 다른 어떤 악마적 존재들의 기원에 대한 제2성

47) 예를 들어, Ben Witherington,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4), 186; Robert H. Mounce, *Romans*, NAC 27 (Nashville, Tenn: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5), 165; James D. G. Dunn, *Romans 1-8*, WBC 38A (Dallas, Texas: Word Books, 1988), 384-85.

전 묘사들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에스라 4서와 아담과 하와의 생애가 나타내는 악한 내적 상태나 힘의 개념과는 잘 맞았다. 그렇다면 바울은 7:11에서도 악한 내적 힘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행위들의 수행자가 뱀이나 사탄보다는 “악한 마음”과 비슷한 악한 내적 세력이라는 것은 롬 7:7-8에서 ἐπιθυμία에 대한 바울의 강조에 의해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바울은 죄가 제10계명(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과 만날 때 죄로서 “알려지고”(τὴν ἁμαρτίαν οὐκ ἔγνω in 7:7) 이 계명을 통해 “모든 종류의 욕심”(πᾶσαν ἐπιθυμίαν in 7:8; 7:5 참조)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James D. G. Dunn이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ἐπιθυμία는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5] 여전히 십계명의 제10계명을 나타내며 따라서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의 의미를 담고 있다.[6] 그렇다면 제10계명은 어떻게 죄를 알려지게 하는가? 죄가 제 10계명에 반하여 “모든 종류의 욕심”(πᾶσαν ἐπιθυμίαν)을 만들어낸다는 묘사는(7:8),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진(“이웃을 희생하여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원하는”)[7] 그리고 반-하나님적 성격을 가진(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추구하는)[8] 욕망들을 생성하는 세력으로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죄는 인간 욕망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자기 추구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며, 이는 제10계명에 의해 드러난다. πᾶς ἐπιθυμία라는 표현은 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자기 추구적이고 반-하나님적 욕망들을 가리킨다.[9] 이 패러다임은 ἐπιθυμία를 πάσης ἁμαρτίας와 밀접하게 연관시키고(따라서 ἐπιθυμία를 악한 것으로 특성화하며)[10] “악한 마음”(ἡ καρδιά ἡ πονηρά)을 죄들의 근원으로 식별하는 그리스어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 내재된 사고와 매우 유사하다. 악한 마음의 종말론적 제거는 더 이상 죄인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이것은 다음 비교를 그럴듯하게 만든다.

(바울)	죄	"욕심"	죄들
(LAE)	"악한 마음"	"욕심"	죄들

ἐπιθυμία에 대한 바울과 그리스어 아담과 하와의 생애의 이해를 통해 드러난 이러한 밀접한 친화성은 바울이 그리스어 아담과 하와의 생애처럼 악한 내적 세력의 관점에서 죄를 묘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에서 제시한 두 요지에 따르면, 롬 7:11에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죽이는 자로서의 죄는 악마적 세력보다는 악한 내적 힘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 롬 7:11에서 “죄”라는 용어에 대한 바울의 선택은 롬 5:12에서 죄에 대한 바울의 이전 묘사와 함께, 바울이 악한 내적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암시이며, 동일한 단락(롬 7:7-12)에서 죄를 “욕심”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방식이 그리스어 아담과 하와의 생애와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도 바울이 악한 내적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을 강화한다. 이것은 롬 7:11에서 묘사하는 죄의 특징이 롬 5:12에서 묘사하는 죄의 기원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자는 실제로 후자를 보완한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롬 5:12) (그리고 고후 11:3에서 암시되듯 뱀의 속임에 의해 야기된) 죄는 세상을 통치하며(롬 5:21) 심지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롬 5:20; 7:8), 이전에 에덴에서 뱀이 했던 역할들을 떠맡음으로써 그렇게 한다(롬 7:11). 이 해석은 “죄”를 인간 안에 거하며 인간의 행동을 장악하여 불순종을 저지르게 하는 강력한 내적인 힘으로 묘사하는 로마서 7:13-25에 의해 최종 확정된다.

3. 죄는 인류 전체를 장악한 강력한 우주적 세력이다.

바울이 묘사하는 죄는 사탄과는 구분된 악한 내적인 힘이며 그 강력함과 영향력의 범위에 있어서 우주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죄”를 단수형으로 표현하여 단일한 존재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죄라는 내적인 힘은 인간 각각에서 작용하는 나누어지고 분열된 수많은 개별적인 타락의 성향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난 인류 전체를 마치 자신의 손에 거머쥐고 있는 듯 한 하나의 거대한 존재 세력 덩어리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죄의 기원을 설명 할 때도 죄 라는 거대한 내적인 세력 덩어리가 아담의 죄를 통해 세상으로 들어와 모든 인류 속에 거하며 악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바울에게 죄의 우주적 성격은 무엇보다 그 보편성에서 드러난다. 로마서 3:9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πάντας ὑφ' ἁμαρτίαν εἶναι)고 선언하며, 이는 개별적인 범죄 행위들이 아닌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단일한 힘으로서의 죄를 가리킨다. 이러한 보편성은 죄가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우주적 원리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바울은 죄를 “왕노릇하는”(βασιλεύειν) 힘으로 묘사한다. 로마서 5:21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같이”라고 하며, 6:12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왕권 은유는 죄가 단순한 행위나 성향을 넘어서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주권적 힘임을 보여준다. 죄는 마치 전제군주처럼 인간을 “종”(δοῦλος)으로 만들어 자신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롬 6:17, 20).

죄의 우주적 지배력은 또한 그 기만적 특성에서도 나타난다. 로마서 7:11에서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ἡ γὰρ ἁμαρτία ἀφορμὴν λαβοῦσα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ἐξηπάτησέν με καὶ δι' αὐτῆς ἀπέκτεινεν)고 증언한다. 여기서 죄는 능동적으로 “기회를 잡고” “속이고” “죽이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는 죄가 단순히 인간의 나약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지능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힘임을 시사한다.

바울의 죄 이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죄와 율법의 관계이다. 로마서 7:8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ἀφορμὴν δὲ λαβοῦσα ἡ ἁμαρτία διὰ τῆς ἐντολῆς κατεργάσατο ἐν ἐμοὶ πάσας ἐπιθυμίας)고 말한다. 이것은 죄가 이방인 뿐 아니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율법을 무력화 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율법에 거스르는 각종 불법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지성을 속임으로서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τὰ γὰρ ὀψώνια τῆς ἁμαρτίας θάνατος)라고 말하는 것이다. 죄와 죽음은 인류를 지배하는 두 개의 연합된 우주적 힘으로 제시되며, 이들의 지배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바울의 이러한 죄 이해는 당시 제2성전기 유대문헌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에스라 4서나 바룩 2서 같은 문헌들도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다루지만, 바울처럼 죄 자체를 하나의 의인법적 실체로 일관되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바울에게 죄는 단순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이나 운명이 아니라,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며 인류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힘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죄 이해에서 죄는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와 전 인류를 예외 없이 지배하는 우주적 힘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내적인 힘이지만 그 영향력은 인간 개인을 넘어 아담

인류 전체를 다스리는 왕처럼 통치하여, 인간의 욕망과 지성에까지 깊게 뻗어들어가고,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만큼 강력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를 사망의 파멸로 이끌 만큼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세력이다. 바울에게 이러한 우주적 죄의 지배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II. 바울의 죄 이해가 보여주는 신학적 함의

바울의 죄 이해가 보여주는 신학적 함의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1.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속죄론적, 기독교론적 함의)

바울이 죄를 사탄과 구분되는 내적 세력이면서도 인류 전체를 장악한 강력한 우주적 힘으로 묘사하는 것은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을 요구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확장시킨다.

대속을 넘어서는 우주적 승리

전통적으로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로 대속적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다. 즉,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분명히 성경적이며 중요한 진리이다. 그러나 바울이 죄를 우주적 세력으로 묘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 대체를 넘어서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다.

롬 6:6-7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을 넘어서, 죄라는 세력 자체로부터의 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승리로 묘사된다. 죄가 인류를 “종”으로 만들어 지배하는 우주적 세력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지배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해방 사건이 된다.

이는 골로새서 2:15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는 표현과도 연결된다. 죄가 우주적 세력이라면, 십자가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음은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개인적 구원의 소식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가 죄의 세력을 정복하셨다”는 우주적 승리 선언이 된다.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 선포

바울의 죄 이해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함의는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우주적 통치자로서 즉위하셨다는 점이다. 죄가 인류를 “왕노릇 하며” 지배하는 세력이었다면(롬 5:21), 그리스도의 승리는 새로운 왕의 등극을 의미한다.

롬 5:17에서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통치권

의 이양이다. 죄와 사망의 통치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개인적 구원의 약속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참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새로운 정치적 현실의 선포가 된다. 이는 초대교회가 "예수는 주님이시다"(Jesus is Lord)라고 선포할 때의 혁명적 함의를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로마 황제가 아닌, 로마인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주의 통치자라는 선언인 것이다.

복음 선포의 우주적 차원

이러한 이해는 교회의 복음 선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복음은 더 이상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적인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온 우주에 걸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선언하는 공적 선포가 된다. 엡 3:10에서 바울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구원을 위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를 온 우주에 알리고 그 승리의 현실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전략적 기지인 것이다.

종말론적 긴장의 현실성

물론 바울은 이 우주적 승리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도 인정한다. 고전 15:25-26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종말론적 긴장 속에 있다. 이는 복음 선포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결정적 승리를 담대히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이 승리가 완전히 실현될 미래적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죄에 대한 종노릇에서 해방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대적이 완전히 제거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까지 죄로부터의 해방을 유지하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한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실현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세력적 죄 이해는 복음을 개인적 구원의 소식에서 우주적 승리의 선언으로 확장시킨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고 포괄적인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도전한다.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혁명적 선언인 것이다.

2. 교회는 어떤 집단이 되어야 하는가? (구원론적, 교회론적 함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승리 선언이라면, 이제 핵심적 질문은 이 승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이다. 바울의 세력적 죄 이해에 비추어 볼 때 교회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성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죄가 우주적 세력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화를 이루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공동체적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오로지 우주적 죄를 진정으로 제압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에 힘입을 때에만 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죄에 대한 종노릇을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의존적인 성화를 이루

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의존적으로 그분의 통치아래에서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만 죄와의 싸움과 성화에서 진보를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의 영역 이동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의 영역 이동의 중요성은 골 1:13에서 잘 나타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말은 과거 어둠의 악한 지배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역으로 옮겨졌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법정적 지위 변화를 넘어서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권력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롬 6:14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할 때도, 강조점은 마찬가지다. 신자들이 더 이상 죄라는 세력의 관할권 하에 있지 않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영역 이동은 복음 선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동 없이는 죄의 우주적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연합을 통한 집단적 승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공동체이다. 고전 12:27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할 때, 이는 은유가 아닌 영적 실체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개별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유기적 몸을 구성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의 통치를 힘입는 승리의 단일 공동체가 된다.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가 찬란하게 빛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그의 충만하신 자를 모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3)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나타나는 장소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화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의 통치에 힘입어 이뤄가는 집단 프로젝트이다. 교회 전체가 죄의 세력에 맞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집단적 과정이다. 이는 고전 3:16-17에서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할 때 사용하는 “너희”가 복수형임을 주목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그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한 성화의 싸움을 감당해나가는 것이다.

도시적 상황에서의 전략적 대응

교회가 성화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도시라는 환경이며 죄가 우리의 욕망과 지성을 공략한다는 공격방식이다. 도시는 무제한적 소비와 욕망 충족의 기회들이 집중된 공간이며, 동시에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세계관들이 경쟁하는 지적 전장이다. 롬 7:8에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할 때, 이는 죄가 인간의 욕망 구조를 교묘히 조작한다는 의미이다. 현대 도시의 광고와 마케팅, 소비 문화는 이러한 욕망 조작을 극도로 정교화한 시스템이다. 또한 롬 7:11에서 죄가 “나를 속이고”라고 할 때, 이는 지적 차원에서의 기만을 의미한다. 도시의 학문적, 문화적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세속적 지혜와 가치관은 종종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왜곡하여 도시가 불어넣어주는 세속적 욕망에 장악 당해있는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게 만든다. 따라서 도시의 교회들은 이중적 전선에서

싸워야 한다. 한편으로는 소비주의적 욕망에 맞서 절제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대안적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적 지혜에 맞서 복음의 지적 정합성과 설득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개별 신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교회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협력할 때만 가능하다.

3. 교회는 어떤 집단이 되어야 하는가? (구원론적, 교회론적 함의)

바울의 세력적 죄 이해는 교회의 선교적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하고 도전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죄가 인류 전체를 장악한 우주적 세력이라면,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가장 본질적인 영향은 사람들을 죄의 지배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영역 이동의 절대적 우선성

현대 교회들은 종종 사회적 선행, 교육 사업, 환경 보호, 빈곤 퇴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분명히 가치 있고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바울의 죄 이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활동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아무리 선한 변화를 일으켜도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그 변화는 죄의 지배 구조 내에서 일어나는 표면적 개선에 불과하다.

롬 8:7-8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단언한다. 이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하더라도,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없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선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복음 선포를 통한 구원적 영역 이동은 다른 모든 선교적 활동보다 우선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가 된다. 고후 5:20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 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복음 선포의 세력 전환적 성격

바울에게 복음 선포는 실제적인 세력 전환을 일으키는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이다. 고전 1:18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고 말할 때, 바울은 복음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실제적 능력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롬 10:17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할 때,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믿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임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고 이성적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복음 선포를 통해 역사하여 사람들을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러한 이해는 선교 전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거나 문화적 친화성을 조성하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복음 선포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

목표는 항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활동의 부차적 지위

그렇다면 교회의 사회적 활동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가? 바울의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그러한 활동들이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복음 선포라는 최우선 과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직 복음 선포를 돕는 한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교회가 빈곤층을 돕거나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활동을 할 때, 이러한 활동들이 복음을 듣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활동들이 복음 선포 없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죄의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교회의 독특한 사명

이러한 관점은 교회의 사명을 다른 사회적 기관들과 구별시킨다. 정부, NGO, 시민 단체들도 사회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보다 더 효율적으로 특정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이동시키는 일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다.

롬 1:16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언할 때, 그는 복음이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임을 강조한다. 교회가 이 독특한 사명을 다른 활동들로 대체하거나 희석시킨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종말론적 긴급성

바울의 죄 이해는 또한 선교에 종말론적 긴급성을 부여한다. 죄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파괴적 세력이라면, 사람들을 이 세력으로부터 구출하는 일은 시급한 응급 상황이다. 고후 6:2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할 때,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죽음과 생명이 걸린 긴급 상황에 대한 선언이다. 이러한 긴급성은 교회로 하여금 사회적 개선이라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적 영역 이동을 더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한다. 사회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많은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세력적 죄 이해는 교회의 선교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를 통해 사람들을 죄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동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다른 모든 선한 활동들은 이 최우선 과제를 섬기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이는 교회의 독특한 정체성과 사명을 보호하고, 세상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